

<토론회>

‘테러’와 ‘이슬람’에 대한 왜곡된 시선



- 일시 : 2005년 8월 23일(화) 오후7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주최 : 이라크모니터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테러'와 '이슬람'에 대한 왜곡된 시선> 토론회

1. 문제의식

런던 폭탄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파키스탄의 이슬람 학교 '마드라사'에서 공부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드라사가 '테러범의 산실'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신문 2005-07-16, '파키스탄 마드라사는 테러범 산실 의심되는 코란 학교']

우리나라에는 이미 국내에 이슬람 56개국의 국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8만3천명이며, '다와톨 이슬람 코리아'같은 반한 이슬람 단체를 조직한 바 있는 이슬람 국적 불법체류자가 3만 9천명이고, 특히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적보유자는 2,400여명이며 그중 400여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정형근 국회의원, '국제테러의 다음 목표는 한국?' -브레이크뉴스 2005-07-13]

○ 이와 같은 보도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은 곧바로 테러와 등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이슬람학교가 테러범 양성소인양 치부되고, 국적이 이슬람권 나라인 사람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 특히, 이라크 침략과 이라크의 저항 관련 보도, 7/7 영국 공격 이후 이슬람 관련 보도, 한국 언론과 제도권의 이슬람, 아랍, 중동에 관한 시각을 보면 이러한 왜곡된 시각들이 걸러지지 않고 표출되고 있습니다.

○ 공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이러한 정보들의 편견은 일반인들의 인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시각에 치우친 정보들은 균형잡힌 인식을 방해하고 '테러'와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시킬 뿐입니다.

○ 이에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담론과 정보를 담아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 세부내용

<사회>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 발제 1 : 이슬람과 테러를 둘러싼 오해 (이슬람문화연구소 이희수 교수)
- 발제 2 : 이슬람과 테러에 대한 왜곡된 정보전달 비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미니)

- 토론 1 : 한국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무슬림 - 이스탄불문화원장 에르한)
- 토론 2 :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 (언론기자 - 프레스리안 박인규 대표)
- 토론 3 : 테러방지법 비판 (테러방지법반대국민행동 박성희 민가협 간사)

이슬람과 테러: 제국주의 미국 이익을 위한 만들어진 허상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

1. 이슬람 세계의 의미

지구촌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개의 세계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어느 양쪽에도 속하지 못하지만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가진 또 다른 인식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슬람 세계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를 중앙(中洋)이라 표현하자고 주장한다. 세계 4대 고대문명권의 3개(이집트-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가 이슬람 세계에 속해 있고, 기독교보다도 힌두교보다도 불교보다도 많은 14억이라는 세계 최대의 종교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정회원국만 57개에 달하는 거대한 문화권을 우리는 지난 50년간 무지 속에 방치해 왔다. 전근대적이고 후진이라는 낙인을 찍어, 물질가치의 오염에 젖은 사고방식과 인식체계의 1차적 희생물로 삼아 왔다.

2 이슬람의 폭력성과 테러리즘 : 그 배경

첫째, 지난 50년간 우리는 중동이라는 분쟁과 자살폭탄테러라는 창을 통해 이슬람과 이슬람 세계를 접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이슬람과 폭력성은 거의 동일개념으로 지난 50년간 우리의 인식세계를 지배해 왔다.

둘째, 지난 50년간 이슬람과 대치상태에 있는 나야가 적대적 이해당사자인 미국과 유대중심의 언론과 정보를 통해서만 이슬람과 이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왜곡된 지식의 해석화는 객관적 진실과 공정보도라는 허울로 실제적 진실을 가림과 동시에 철용성 같은 맹신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춤추고 있다.

셋째,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이란 역사적 근거가 없는 왜곡된 용어가 지난 1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했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넷째, 목적달성과 폭력의 정당성을 위해 이슬람의 옷을 걸친 극소수 급진 테러조직들의 과격한 행동과 자살테러가 이슬람적인 일반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양산된 이슬람에 대한 근원적인 오해와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다.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한 3% 미만의 극렬반미집단들의 무차별적인 대미 항쟁이 이

슬람 전체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체첸 등지에서의 순수한 해방 투쟁을 테러화하고 이슬람 전체를 폭력집단화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주의 몰락이후 강력한 위협세력으로 등장한 이슬람권을 약화시켜 미국 이익 극대화를 노리겠다는 제국주의 전략이 결국 이슬람 세계를 악의 축, 테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슬람 국가에 대한 부당한 침략과 무고한 무슬림 민간인 희생을 정당화시키는 “이슬람 죽이기” 정책에 우리 언론이 덩달아 춤을 추는 아이러니의 결과(보스니아 사태, 아프가니스탄 침공, 체첸독립투쟁, 팔레스타인 분쟁, 이라크 침공, 악의 축이란 등)

여섯째, 약탈과 침략이 생존을 위한 주요한 경제취득의 방편이 되는 아랍 유목사회의 삶의 방식과 이슬람 가치체계의 혼동/ 정교일치 사회의 몰이해

3.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공존과 상생의 지혜

이슬람이야말로 공존과 상생이라는 두 뿌리를 딛고 자란 종교이다. 아라비아라는 척박한 생태조건에서 두터운 문화적 하부구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발아한 이슬람은 용광로를 활짝 열어놓고 주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화함으로써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포용력과 융화력이야말로 이슬람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일신교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이슬람 제국의 기본 정책은 칼보다는 공납이었으며, 이슬람 세력의 권위와 기득권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소수민족들의 종교와 피지배민족들의 문화는 향유되었다. 소수정예의 교역·유목·전사 집단이 주축이 된 이슬람 세력은 우선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기 때문에, 과거 비잔틴과 페르시아 치하에 있던 농경 정주사회를 직접 통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피정복지의 토착세력과 결탁하여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주었다. 해당 지역의 문화를 순화시키고, 기존 문화와의 공존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했다. 일방적으로 이슬람을 강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런 면에서 이슬람의 정복과정에서 서구가 만들어 놓은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거의 완전한 허구다. 이슬람의 급속한 전파는 토착문화와의 자연스런 만남과 공존의 결과였다. 16세기 이후 이슬람화 된 지역들은 그 후 수백년 동안 서구 기독교나 다른 정치세력의 지배를 받았으면서도 단 한 곳도 이슬람 종교를 버리고 원래의 토착 종교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정치집단의 이데올로기로 개종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슬람의 무력전파를 반박하고 종교의 공존과 문화의 상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역사적 증거다.

십자군 전쟁은 인류역사상 종교의 이름으로 더럽혀진 가장 추악한 전쟁이었다. 그것은 기독교 유럽세계에 의해 자신들과 다른 가치를 짓밟고, 자신과 다른 모습을 가진 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반문명적 대사건이었다.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에 입성한 십자군들은 시퍼런 칼을 들고 무슬림들과 유대교도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도망치지 못하고 성 안에 남아있던 이교도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다. 이슬람 사원은 불탔고, 철저히 파괴되었다. 1204년 4차 십자군 원정 때는 비잔티움을 공격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살육전을 벌였다. 화려한 비잔티움 문화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초토화되었다.

90년쯤 지난 1187년 이번에는 살라딘 장군이 이끄는 이슬람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했다. 그곳의 기독교 프랑크인들은 삶을 포기했다. 이슬람군에 의한 복수의 양갓춤에 두려워 떨었다. 그러나 살라딘은 그들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부자들은 재산을 갖고 떠나도록 허용되었으며, 그들의 종교적 성소는 보호되었다. 그들 모두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살라딘의 너그러움에 감복했다. 그 뒤 천년간 예루살렘은 이슬람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상생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적어도 유럽 기독교 사회가 버리고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 불러들여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주는 1948년까지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의 또 다른 공존의 현장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였다. 안달루시아는 8백년간(8세기~15세기말) 무슬림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던 사회였다. 아랍인, 베르베르인, 토착 스페인 인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롭게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나 유럽으로부터 이주한 외국인 병사들까지 한데 어울려 살았다. 떠나는 사람은 적고 몰려드는 사람은 많았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안달루시아 아랍어와 후일 스페인어로 발전한 로망스어를 함께 사용했다. 아랍 역사에서 이븐 루시드(Ibn Rushid)로 알려진 아베로스(Averroes), 이븐 바자(Ibn Bajjah), 이븐 아라비(Ibn 'Arabi), 이븐 투파일(Ibn Tufayl) 같은 대학자들이 안달루시아에서 배출되어 잠자는 중세문명을 되흔들었던 배경은 이럼 점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안달루시아는 16세기부터 과거의 화려한 문화가 철저히 부정되고 말살 당하는 편협과 독선의 무대로 바뀌었다. 1492년 그라나다의 이슬람왕국을 침공한 페르난도 5세와 이사벨라 여왕은 문화적 공존 대신 이교도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는 정책을 택했다. 8백년간 꽃피웠던 안달루시아 문화는 고개를 떨구었고, 유대인과 무슬림들에 대한 가혹한 인종청소가 따랐다. 모스크를 비롯한 이슬람 유산들은 사용이 중단되거나 철폐되었고, 어떤 형태의 이질적인 종교적 가치도 용납되지 않았다. 무자비한 억압은 1631년까지 계속되었고, 남아있던 무슬림들이 모두 그라나다를 떠남으로서 안달루시아 문화는 종말을 고했다.

안달루시아 문화가 그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민족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민족, 사상, 언어 등을 접할 수 있었고, 상호 배타적 적대관계보다는 이질적인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상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안달루시아는 이슬람 세계와 막 태동한 유럽세계를 잇는 문화의 교량으로서 유럽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튼튼한 한 축을 담당했다. 그 후 기독교 안달루시아가 카톨릭 이외의 모든 종교를 배척하자, 문화 다양성의 용광로는 더 이상 가동을 멈추었으며, 결국 17세기 이후 스페인 문화가 정체하게 된 한 이유가 되었다.

이슬람 초기부터 소수민족에 관한 코란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었다. 코란은 자신과 다른 종교와 이념을 강제로 개종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진리는 분명 오류와 구분되나니..."(코란 2: 256).

"그대는 그들의 뜻에 반하여 강제로 믿음을 강요하려 하느냐?"(코란 10:99).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 속에서 비무슬림 소수민족들은 개종대신 일정한 공납을 추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와 고유한 문화적 전통은 보호되었다. 다양성과 조화야말로 알라의 창조에 대한 기본 속성이며 이슬람의 본질적 핵심임을 밝힌 것이다. 타자와의 공존과 타자의 인정, 적극적인 대화와 절충이 무슬림들의 덕목으로 요구되어졌다.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은 담미와 밀레트 제도를 정착시켰다. 이 제도는 이슬람 국가내의 허용된 보호받는 비무슬림 시민들을 일컫는 법률적 용어였다. 실제로 그들은 기독교인, 유대인, 그리고 동부 지역의 조로아스터교 인들을 의미하였다. 담미는 지즈야라 불리는 인두세를 납부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의 보호, 신앙의 자유,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에서 광범위한 내적 자치 등을 보장받았다. 오스만 제국시대에 소수민족 보호장치였던 밀레트 제도는 그리스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완전한 자치와 종교적 정통성을 인정한 제도였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4. 오일쇼크와 새로운 중동

통일신라 때부터 시작된 한국과 이슬람권과의 교류와 접촉은 고려말을 거쳐 조선초기 까지 한국사회의 두뇌집단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그 후 오랜 단절 끝에 우리가 다시 이슬람 세계를 만나게 되는 시점은 1970년대초였다. 이미 우리 산업구조가 거의 완전한 석유 에너지 체제로 바뀌고 난 후였다. 예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석유라는 물품을 주는 교역대상자로 파악되었다. 그들의 석유를 가져다가(전체의 70%이상) 산업화를 하고 석유에 국가경제의 운명을 걸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도도하고 건방지게 산유국을 대했다. 석유를 직접 산유국에서 가져오기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 메이저들을 통해 들어오는 관계로, 우리가 산유국을 대하는 태도는 메이저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고,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조작해 놓은 아랍의 이미지를 우리도 판에 박은 듯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후 부분적으로 직접 석유 수급이 이루어지고, 산유국의 건설시장에 100만명 이상이 진출하여 막대한 외화벌이로 100억불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에도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문화 가치들이 가져다 준 난치병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셈이다.

5. 이슬람의 기본 가르침

1) 첫째 특징

이슬람은 우상숭배타파, 평등과 평화를 표방하는 철저한 일원적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입지를 마련해 갔다. 아담에서 아브라함, 모세, 예수로 이어지는 성경상의 많은 선지자들은 시대적 임무를 띤 훌륭한 인간 예언자로 인정되고 추앙되었다. 마호메트는 예수이후에 신에 의해 보내진 마지막 예언자로서 앞선 복음의 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질된 신의 진리와 곡해된 말씀을 바로잡고 완성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코란은 모세오경, 시편, 복음서 등 앞선 경전들의 내용을 순화, 보완해

주거나 확증해 주는 최후의 경전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종교는 이슬람으로 완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줌의 신성도 갖지 않는 최고의 인격체로서의 예언자관과 신과 인간의 직접교통, 계급과 인종, 피부색을 초월한 만민의 평등과 구체적 형제애 의식이야말로 하층민을 파고든 이슬람의 차별성이고 강점이었다.

2) 둘째특징

정교일치적 특징과 종교가 삶 속에 완전히 녹아있는 형태의 가치체계

3) 중재자나 대속자 없이 신과 인간의 직접 교통에 의한 구원

6. 이슬람 중세의 번영

유럽이 암흑의 질곡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중세의 이슬람세계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가장 찬란한 시대를 살았다. 당시 세계에 이슬람세계만큼 광범위하고 통일된 정치체제와 문화의 통일성을 가진 문화권은 없었다. 이는 다양한 문화요소를 수렴하여 자기화 할 수 있는 견고하고 통일된 용광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과학과 기술은 물론 그리스-로마의 고전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학문적인 르네상스를 맞았다. 물론 그리스-로마의 학문을 보존하여 유럽에 전해 준 아랍세계의 문화적 교량역할이 유럽의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중세 아랍의 학문과 세계문화는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천문학(astronomy), 점성학(astrology), 화학(chemistry), 연금술(alchemy), 대수학(algebra), 연산학(algorism) 같은 학술용어는 물론 알칼리, 알코올, 설탕(sugar), 레몬, 커피, 음악(music), 자스민, 수표(chegue), 관세(tariff), 시럽 같은 생활용어가 아랍어에서 파생되었거나 아랍세계에 의해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이다.

7. 이슬람원리주의와 이슬람 부흥운동

중동-이슬람권의 대부분의 지역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사이에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이슬람인들은 서구열강의 가혹한 탄압과 경제적 수탈을 경험하면서 씻을 수 없는 좌절을 경험하였다. 그토록 선협적인 자부심을 가져왔던 이슬람 가치체계가 이교도의 세속주의에 무참히 유린되는 사상적 굴욕을 견뎌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서구의 부정이 아닌 서구와의 협력과 조화 속에서 이슬람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소위 이슬람부흥운동이 등장하였다. 물론 서구의 탄압에 대한 일종의 정면승부 수단인 이슬람 원리주의가 과격하고 급진적 형태의 무장투쟁으로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슬람 부흥운동은 이러한 오도된 성격의 이슬람원리주의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이슬람운동권의 극히 일부가 서구의 끊임없는 경제적 착취와 이슬람 가치체계에 대한 흠집내기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면서 과격주의와 폭력주의가 생겨났다. 그리고 소수의 폭력적인 성향의 배경에도 다른 저항의 수단을 앗아가 버린 서구자신의 책임이 엄연히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보전에만 급급하면서 한 공동체의 고유한 사상과 가치들을 짓밟고 자신의 것만이 지고선이라 생각하는 독선이 바로 이슬람 급진주의의 최대 후원자인 셈이다.

오랜 일당 군부독재와 프랑스의 지원이 알제리에서 FIS(국민구국당)의 집권가능성을 만들어 주었다. 튀니지나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끈질긴 저항을 계속하는 것도, 이슬람국가 중에서 서구화와 세속화가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터키에서조차 최근 이슬람을 정강으로 표방하는 정의발전당(AKP)이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대도시의 시장선거를 석권하고, 세속공화국 80여년만에 처음으로 단독집권을 경험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8. 자살테러특공대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거점을 둔 하마스 본부에는 항상 자살특공대를 지원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난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폭탄을 안고 목숨을 버리기 위해 서로 경쟁하듯이 몰려들고 있다. 단순한 종교적 광신일까? 무지몽매한 자들의 야만성일까?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심장부에 대한 항공기 폭파 테러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미국을 향해 그렇게 무모한 도발을 계속해야만 하는가? 그들의 응어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9. 반미 응어리의 태동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땅에 위대한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했다. 아랍국가와 제3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아랍인의 심장부에 유대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2천년 유랑생활을 마무리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난 유대인들의 승리에 세계는 동정과 축하의 눈길을 보냈다. 바로 그날 수백만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나면서 분노와 조국탈환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2천년간 평화롭게 살아온 조상들의 땀과 피가 어린 땅이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유럽에서 온갖 민족적 차별과 종교적 박해를 감수하면서 굳건한 터전을 다졌다. 유대인 박해와 나치학살로 이어지는 유대인 말살정책은 유럽인들의 죄과였다. 왜 유럽인들이 버리고 희생시켰던 유대인들을 아무런 인과관계나 역사적 책임이 없는 아랍인들에게 전가시켜야 하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국을 향한 지울 수 없는 응정의 원한이 뿌리를 내리는 시점이기도 했다. 힘없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난민이 되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오직 한 가지 고향에 돌아가는 꿈을 꾸면서. 그러나 그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1967년 중동전쟁에서 고토회복은 커녕, 기존의 아랍 영토마저 이스라엘에 점령당했다. 지중해 지역의 가자지구, 요르단 강 서안, 골란 고원, 시나이 반도 등이 그곳이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점령지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했지만, 그 결의안은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면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비호해 왔기 때문이다.

10. 현실과 타협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좌절

어느 듯 50년이 흘렀다. 이미 이스라엘이 핵을 가진 강대국으로 발돋움 한 현실에서 조국을 되찾는 꿈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중재하여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점령한 땅에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수립해주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신 팔레스타인은 헌법을 바꿔 이스라엘 탈환을 포기하고 국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난 50년간 조국되찾기에 헌신했던 많은 강경세력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현실정치를 받아들인 대다수 온건 아랍인들을 이 길을 선택했다. 전쟁에 지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양보이고 생존의 게임이었다. 그것이 1993년의 오슬로 평화혁명이다. 땅과 평화의 교환이었다. 국제사회는 모처럼의 화해와 공존의 틀에 박수를 보냈고 그 당사자들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평화협정 이행과정에서 일부 팔레스타인 반대세력들의 테러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강경 정권은 자국민보를 들어 평화협정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렸다. 나아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통해 자국 영토화를 꾀하고 군대를 동원한 무차별 민간인 학살로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꿈을 무산시켜 버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부시 정권은 미사일과 팬텀기를 동원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민간인 학살을 지원하거나 수수방관했다. 평화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듯이 보였다. 최근에는 조직적인 요인 암살 계획에 따라,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지도자를 포함한 강경파 지도자들이 차례로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시온주의를 인종차별 이념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열의를 무시하고 미국은 남아공의 더반에서 열린 인종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이슬람권에게 극도의 불신감과 배신감을 심어주었다. 겉으로는 세계평화와 인권을 내세우면서 일방적 가치를 강요하고 이중잣대로 이슬람세계를 유린하는 미국에게 강경파들은 더 이상의 기대를 포기했다.

11. 무장된 테러와 몸을 던지는 테러 사이에서

그들은 분노했다. 기회와 선택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온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목숨을 내놓았다. 항공기를 몰고 미국을 향해 응징의 도전을 한 셈이다. 리비아, 이란 같은 반미국가는 물론 지하드,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과격 이슬람단체들도 한결같이 미국에 대한 이번 테러를 비난했다. 그들이 스스로 테러를 행하면서 왜 이번 테러를 동시에 비난해야 하는가? 민간인을 담보로 한 테러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비난받아야 할 행위다. 동시에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공연한 민간인 학살도 국가 테러로 중지되거나 응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동시에 미국의 일관된 정책과 모두에게 공유되는 가치기준을 적용하기를 원한다. 핵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핵사찰의 예외로 묵인하면서 적대관계에 있는 인근 아랍국가들의 자위 개념의 핵 시설은 물론 사소한 화학무기 프로젝트까지 철저히 파괴하는 미국의 이중성에 아랍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12. 미국에게 던지는 절규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희생당한 참혹한 테러현장에서 서방세계가 경악하고 분노와 슬픔을 보이고 있을 때, 아랍전사들은 지난 50년간 이스라엘의 테러로 숨진 수만명의 형제와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짓고 있

다. 그러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다. 뉴욕과 워싱턴에서 일어난 미국 시민들의 아픔을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의 매일 되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랍인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반미를 깊이 깔고 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과격 테러리스트 집단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절대다수는 폭력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갈구하고 있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는 한, 대립보다는 화해를 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의 과도한 보복공격이나 엄청난 민간인의 희생이 따르는 폭격은 또 다른 테러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테러의 악순환의 고리는 가진 자가 먼저 푸는 것이 순리라 생각된다. 미국이 세계의 최강자로서 빼앗긴 자의 아픔과 약자의 응어리에 귀기울리는 유연한 자세, 팔레스타인 문제를 하루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만이 테러의 근거지를 약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응징이 될 것이다.

13. 아프간 공습과 테러문제의 지성적 해결

정의의 이름으로 테러범을 색출하고 그 배후세력을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시작된 아프가니스탄공습은 시간만 흐르고 있다. 남아있지도 않은 폐허된 사회간접시설을 초토화시키고 지상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아프간인들의 고통에 또 다른 고통을 더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 되어 떠도는 거대 디아스포라 앞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정의를 외친다. 연일 언론은 문명의 충돌을 당연시하며 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하다. 전쟁을 이웃집 구경거리쯤 여기는지 신문과 TV는 첨단무기와 미군의 전력배치와 작전개념과 전술핵무기 사용고려와 각국에게 요구할 군사지원의 분담액에 대한 소식들로 가득하다. 자유와 정의를 앞세우지만, 가진 자의 정의와 자유가 어떻게 생존문제에 앞설 수 있겠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아야겠다는, 무고한 민간인의 대규모 살상을 전제로 하는 폭격은 인류사회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지성의 목소리는 묻혀 버린다. 500억불 운운하는 대테러 전쟁비용의 10%만 아랍-이슬람권의 경제원조에 사용된다면, 보복공격에 의한 테러응징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테러방지가 되리라는 기대를 우리는 왜 포기해야만 하는가? 이번 사건도 예외없이 현상만을 떼어놓고 힘의 논리에 입각한 국제정치질서의 틀 속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무지막지한 정글의 법칙이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다. 확실한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국제법과 유네스코의 인권협약, 그리고 인류의 보편가치의 보호라는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들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을 통한 국제전범재판소의 설치 등을 통해 인류의 이름으로 테러를 응징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왜 논의조차 못하는가? 세계지성은 죽었는가?

14. 이라크 전쟁과 오늘의 중동

지금 중동에선 이라크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월 30일 이라크에서 순니파 핵심주류세력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치러졌다. 시아파와 쿠르드족들이 예상대로 압승을 거둔 선거 결과를 두고 “중동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쾌거”라는 미국의 반응과 “총칼로 위협한 민주주의”라는 중동 민심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또 순니파를 배제한 채 이라크를 결국 쪼개겠다는 연방안 헌법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라크 총선에 앞서 1월 중순에는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사망

이후 새로운 후계자를 뽑는 선거가 치러져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호하는 압바스 마흐무드가 새 수반으로 당선되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초강경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극에 달한 중동의 반미정서가 또 언제 다른 모습으로 폭발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두 나라의 모처럼의 선거가 중동전역에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와 대중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라는 민주주의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지방 의회 의원을 선거로 뽑기 시작했고, 2월 27일에는 24년간 일당독재를 해 온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혁명적 변화를 선언했다.

이런 중동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산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유가는 배럴당 60불을 훨씬 웃도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라크 북부지역에 파병되어 있는 자이툰 부대의 안전도 조마조마하기는 마찬가지다.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비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국익과 글로벌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15. 이슬람과 한반도의 천년의 만남

중세 이슬람문화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동아시아와 유럽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천문학, 의학, 화학, 지리학 등이 발달하여 알칼리, 알코올, Chemistry(화학), Philosophy(철학), Algebra(대수학), Astronomy(천문학), Astrology(점성학), 커피, Sugar, Music, Lemon 0의 개념(cipher), 지도(atlas), 천저(zenith), 천정(nadir), safari, cotton, saffron, syrup, jasmine 등의 아랍어 용어가 지금까지도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세의 우수한 이슬람 문화는 곧 바로 실크로드를 따라 한반도까지 폭넓게 전파되었다. 고대 문화교류는 흔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랍-페르시아 상인들의 신라 진출이 본격화되는 8-9세기경에는 <비잔틴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슬람제국의 수도 바그다드-당나라 수도 장안-신라 수도 경주>간에는 문화적으로 거의 동시 패션시대가 열렸다고 생각된다. 콘스탄티노플의 상류사회 왕족들이 사용하던 장식품이나 공작새 꼬리털, 비취모, 공예품, 보석류, 여성 소품들과 바그다드의 카펫트 말안장, 다양한 카펫트 제품, 에머랄드 빛과 장식소품, 유리제품, 금속 수공예품 등이 중국 장안을 거쳐 신라수도 경주에까지 활발하게 전달되어 신라 귀족사회의 고급문화를 일구어냈다. 경주고분에서 발굴되는 무수한 서아시아적 요소들이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8-9세기부터 많은 아랍-페르시아 상인들이 신라사회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들 대부분이 멀리 알렉산드리아나 걸프 해에서 출발해 경주로 직접 온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동남부 해안에서 신라로 건너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는 이미 7세기부터 남동부 국제항인 광주, 천주, 복주, 항주, 양주를 중심으

로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신라 사람들의 거주지가 “신라방”으로 불린 것처럼, 아랍인들의 거주지는 “번방(蕃坊)”으로 불렸다. 876년경 중국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광주에서만 10만 명 가량의 아랍계 외국인이 희생되었다고 하나 당시 번방의 규모를 짐작하고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인과 아랍인은 중국에서 일차적인 교류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흑조해류를 따라 바로 열흘 내지 보름간의 항해거리에 있는 지척의 울산항으로 쉽게 오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븐 쿠르다드비를 비롯한 17명의 아랍-페르시아 학자가 쓴 20여권의 책에서 신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이드리스는 신라의 금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1154년에 편찬된 그의 세계지도에는 신라가 6개의 섬으로 묘사되어 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마도 이 지도는 한국에 관한 세계최초의 지도로 평가된다. 200만권에 달하는 아랍어 고문서 필사본이 아직 분류가 되지 않아, 이 자료들이 모두 학계에 보고되면 신라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슬람 상인들에 의한 사치품의 수입과 신라사회의 오염된 도시문화는 결국 한국역사상 최초의 IMF형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 주도된 세계각지의 고가품과 사치품이 신라사회에 범람하자, 고삐 풀린 수입개방은 결국 신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이리하여 흥덕왕 9년인 834년에는 호화 수입 사치품을 금하고 풍속을 바로 잡는 금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문화는 쉬일수록 풍부하다. 고대 신라와 서아시아와의 해로를 통한 문화교류는 매우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새로운 해석을 통해 고대 우리 문화의 원류를 제대로 밝히는 작업이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문화의 상호교류성에 따라 최초의 대식진출, 고선지의 서역 경영, 아프리카시압 고분도의 신라사절, 이정기의 활동, 장보고의 세계경영 전략 등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의 서아시아 진출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16. 한국의 파병과 중동의 정서

다양한 의견과 모호한 국익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미 파병을 결행한 우리에게 이라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

지금 파병지대는 쿠르드 자치지역이다. 이라크와 상당히 불편한 관계 속에서 미국과 이세의 힘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치권 확대와 독립을 꿈꾸고 있는 지역이다. 물론 쿠르드 독립을 원하는 주변국은 하나도 없다. 쿠르드족을 소수민족으로 두고 있는 터키, 이란, 시리아 등은 벌써부터 협약을 맺고 쿠르드 독립에 대비한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미국도 결코 중동 역내에 또 다른 골칫거리이며 유전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쿠르드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곳에 자이툰 부대가 가 있다. 열심히 그들을 도와주면 쿠르드 독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활동이 될 것이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파병이 근본적인 의의가 사라진다.

나아가 미군처럼 점령군이 아니라 대민봉사와 건설을 통해 이라크의 진정한 친구 이미지를 심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복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이슬람과 중동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파견 후보지의 오랜 역사와 화려한 문화유적지에 대한 우리 장교들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는지, 이라크인들과 일상의 접촉을 담당할 통역과 언어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한 것인지, 남녀가 철저히 구분되는 사회에서 수색과 경비를 담당할 전문 여군들이 충원되어 있는지? 돼지와 개를 금기시하는 종교적 풍토에서 음식조달과 군견수색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이라크인들에게 절실한 물과 전기, 기초 생필품, 기초교육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어떤 단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항구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진정한 우정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평화학교의 운영이나, 한국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문화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지? 다양한 종파와 부족연합 체제 속에서 그들과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위기발생 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풀을 어떻게 네트워킹 할 것인지, 이번 파병으로 깨어진 한국 이미지를 구축하고 친한국적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들이 무엇인지 살펴 하나하나 리스트를 만들어 나가고 실천에 옮기는 작업이 시급하다.

17. 이라크의 미래

테러를 응징한다며 시작된 이라크 전쟁으로 사실 중동에서 테러와 거의 연계가 없었던 이라크를 중동의 새로운 테러 무대로 바꾸어 놓았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점령자를 몰아내자는 이슬람권의 반미 공감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테러집단들이 대거 이라크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후세인 체포로 저항이 수그러드리라는 당초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가장 강력한 반미 테러의 교두보를 이라크에 마련해 준 셈이 됐다.

중동에서의 테러는 주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었다. 미국이 그 배후에 있지만, 뚜렷한 직접대상이 없어 대미테러는 한계를 가졌었는데, 이제 그들은 물을 만난 것이다. 중동 한복판에 미군이 국제법을 어기고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은 명분과 여론 지지에서 테러집단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호기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라크 내의 저항조직은 반미 응징을 목표로 삼고 있는 테러조직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들은 외국군의 철수와 조국의 해방을 외치는 일종의 레지스탕스들이다. 외국군이 자기 나라를 부당하게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항하지 않는 민족은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가? 왜 그들이 테러리스트가 되어야 하나? 저항조직들은 후세인 시대를 그리워하지도 후세인의 복귀를 꾀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결코 후세인 지지하지 않는다. "후세인이 싫지만, 미국이 더 싫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다." 한 미국 언론인의 표현대로 "무너지는 후세인의 동상으로 밑에 있는 미군을 깔아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라크는 수렁에 빠졌다. 미국이 쉽게 이라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일이고 보면, 이라크의 장래는 지금보다 더욱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라크는 기본적으로 복잡사회다. 1932년 이라크를 독립시키면서 영국이 만들어 놓은 통치전략의 불행한 결과다.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이라크 북부 유전지대를 통치하고 있던 터키에게 석유 이권을 박탈했다. 1979년 이란에서의 이슬람 혁명 성공이후에는 반미노선이 뚜렷한 이라

크 다수 시아파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순니 소수정권인 사담 후세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다. 이라크 북쪽에는 또 터키계인 투르크멘 집단이 자신들도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을 조정하면서 이라크 국가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는 이슬람의 공통적 가치, 반미라는 강력한 연대의식, 후세인 정권의 카리스마와 강력한 독재였다. 그러한 후세인의 독재를 지지해주고 심지어 강화시켜준 배후에는 항상 미국이 빠지지 않고 등장해 왔다. 조만간 이라크는 미국의 식민통치에서 미국의 조정을 받는 과도정부로 다시 서서히 민주국가로 거듭나리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주의가 달성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돌발변수가 너무나 많다. 우선 다양한 집단들의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이끌어 갈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쿠르드의 자치와 독립에 대한 것도 터키와 이란, 시리아 등 주변국가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시아파 중심의 정권도 민주적인 절차에는 부합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밤잠을 설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언제 바로 이웃의 이란과 연계하여 미국의 이익에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치른 현재 상태에서 시아파 집권이 명백해 졌다. 그렇지만 시아파는 이웃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항상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다. 그래서 현재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강요도, 이란식의 신정체제의 고집도 아닌 정교가 어느 정도 분리된 세속적인 시아파 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 중동 전문 컬리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 지적한대로 “이란보다는 더 민주적이고, 터키보다는 더 종교적인”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강력한 이슬람의 가치를 내세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체제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세계 여론을 거스르며 힘든 전쟁을 치르고 난 미국은 어떤 상태에서도 친미적인 정권을 세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친미를 고집하다 보면 또 다른 독재정권의 탄생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엄연한 현실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덜 반미적인 정권으로 미국과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하루 빨리 미군 위주에서 유엔주도의 국제평화군으로 대체하고, 국제법과 규범을 존중하면서 국가 테러의 주범인 이스라엘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팔레스타인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중동평화를 지향하는 정책이야 말로 또 다른 사담 후세인의 출현을 막는 첩경일 것이다.

18. 우리언론과 이슬람, 그리고 테러리즘

우리 주류 언론의 방정식은 아직도 명확한 선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미국=선, 이슬람=악이라는 도식이다. 일부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겠다. 상당 부분은 다분히 의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난다.

최근 1주일치 신문들만 봐도, 가자지구 철수 문제를 이스라엘 점령지 전체의 문제로 포장한다든지, 순수한 저항 독립 투쟁과 극렬 반미 복수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테러집단으로 분류해 버린다거나, 외교분쟁을 일으킬만한 왜곡된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든지 아직도 고치고 다듬어야 할 시선의 내용들이 많다.

19. 이라크 전쟁이 가져다 줄 중동의 변화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침공으로 중동전체 민중들의 반미정서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각인되었다. 침공 명분뿐만 아니라, 침공 과정에서의 민간인 살상, 점령 후의 오만한 강공책과 이슬람 정신유산에 대한 경시, 전직 지도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 등으로 막연하고 관념적인 반미정서가 보다 구체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반미 운동으로 옮겨 붓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는 이슬람 강경세력을 자극하여 테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분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동시에 인근 아랍국가 지도자들에게는 심각한 교훈이 되었다. 미국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며 비민주적인 독재자의 과오와 몰락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면전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아랍국가의 민주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 특히 석유로 부를 축적한 산유국 왕정국가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미국에 의존해 왔던 이들 정권에 대한 반미적인 민중들의 저항과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회제도가 활성화되고, 사법 제도의 개혁, 여성의 사회진출 등이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여성의 운전조차 허용하지 않는 사우디의 변화는 곧 아랍전체의 혁명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3억 57개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중동-이슬람 문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어느 때 보다 요청되는 시점이다. 건설과 원유, 자동차와 가전제품과 같은 상품시장과 경제적 파트너로서 이슬람권에 머물지 말고 지구촌의 글로벌 시대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지구촌 최대 단일 문화권을 온통 적의감과 무지상태로 내버려두고 글로벌 시대와 문화다양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허구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20. 제3세계 문화 바로 읽기와 우리의 자세

이제 우리도 제3세계의 핵을 이루고 있는 중동-이슬람권 세계를 보다 유연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슬람사회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문화이해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특히 냉전체제가 무너진 후, 국경의 개념, 특히 경제와 문화경계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가진 자의 힘이 문화를 함께 싣고 상호교류의 형식을 빌어 무차별 약한 자의 삶의 형태를 변질시키고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착각과 희망이 뒤섞인 채, 약한 자가 아닌 가진 자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 자신이 제3세계의 일원으로 피지배의 아픈 경험을 수없이 반복해 왔음에도, 스스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서구식 교육을 받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이론을 근대화와 문명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이 땅에 퍼트려 우리의 방식과 가치를 간과했던 한국지성계의 책임도 크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란 카드로 다음 세기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세계화란 최소한 두 가지 기본축이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 첫째는 자신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문화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축적과 주체적인 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전자는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무한한 민족적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하고, 후자는 서구중심적인 틀에서 온갖 세상을 바라보았던 가치관을 자기중심적인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민족적인 요소의 보편화와 그 총체가 바로 진정한 세계화이고, 아울러 서구화의 모방이 세계화의 가장 위험한 전형임을 깊이 인식하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자세에서 우리는 13억 이상의 거대한 이슬람 공동체를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이에 따르는 국가의 투자와 연구자들의 분발이 어느 때 보다도 강력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주요 이슬람 참고 도서>

참고할 책들

이희수 외, 2001, <<이슬람: 9.11 테러와 이슬람문명 올바르게 이해하기>> 청아
로레타 나폴레오니, 2003, 모던 지하드, 테러 경제, 시대의 창
카렌 암스트롱, 2002, 마호메트 평전. 미다스 북스
이희수, 2003, 이슬람문화, 살림
당대비평, 전쟁과 평화, 2001, 삼인
한국이슬람학회, 2002, <끝나지 않는 전쟁> 청아
버나드 루이스, 이희수(역) 1998, <중동의 역사> 서울:까치
이희수, 1993, <한.이슬람 교류사> 서울:문덕사
모함마드 하타미, 이희수(역) 1999, <희망과 도전> 서울:주류성
해밀턴 김, 이희수, 최준식(공역) 1997, <이슬람> 서울:주류성
이희수, 어린이 이슬람 바로알기, 2001, 청솔

<발제 2>

이슬람은 테러리즘인가? : 7.7 영국 폭탄 공격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짧은 생각

미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0. 조사 대상

- 1) 조사 대상 : 05년 7월 8일 ~ 8월 10일까지 영국폭탄공격에 관한 몇몇 언론 보도
- 2) 대상 사이트 - 아래 사이트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걸린 것들입니다. (참고 : 아래 글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모두 웹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종이신문의 발행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 :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 : 뉴스메이커 <http://newsmaker.khan.co.kr/>
-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 :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 : 스포츠한국 <http://www.sportshankook.co.kr/>
- : 업코리아 <http://www.upkorea.net/>
-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
- : 한겨레 <http://www.hani.co.kr/>
-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1. 누가, 왜 폭탄을 터뜨렸나?

“높은 실업률과 소외에 내몰린 무슬림 젊은이들은 테러조직의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 - '유럽이민 무슬림3세 '테러의 유혹' ', 동아일보, 2005-07-09

“소외된 무슬림 유럽인 ‘자생테러 불씨’ ” -한겨레, 2005-07-14

“런던 테러범 알고 보니 영국 출생 초등학교사 부유층 아들” - 조선일보, 2005-07-15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한겨레 아님 조선일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심리 상태, 성장 배경, 경제적 처지, 성(性), 종교 등. 이 가운데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는 심리 상태와 성장 배경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 했고, 술과 담배를 좋아 했으며 전자오락을 즐기면서 살인을 쉽게 여기게 되었다’ 따위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군대 내부 반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인은 개인의 성향과 가정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적 빈곤, 사회적 차별, 구조화되어 있는 군대의 반인권적인 문화 등에서 사건의 원인을 찾고,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원인이 개인이나 사회냐를 두고 얘기한다면 꼭 어느 쪽이 100%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가 보다 큰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 벌어진 폭탄 공격은 어떻습니까?

먼저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찾아냅니다.

1) 개인성향과 빈곤, 소외 등의 사회적 처지입니다.

실업과 가난 등으로 술과 마약 등에 빠지게 됐고, 자연스레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리에는 술과 마약에 찌든 청년들이 활보하고 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 ‘영국인이 될 수 없던 그들에게 종교가 전부였다’, 조선일보, 2005.08.02

술!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술 많이 먹기로는 세계 2등이라면 서러워할 한국은 테러 때문에 나라가 벌써 박살이 났겠습니다.^.^ 가난으로 따지자면야 기독교 백인 청년들도 무슬림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실업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겠지요 그런데 왜 유독 무슬림 청년들만이 빈곤과 실업의 결과로 테러에 뛰어 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2) 두번째는 종교입니다.

“원전한 영국인이 될 수 없는 그들에게 뿌리를 가르쳐 준 것이 종교였다. 뉴욕타임스는 “마약과 술,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종교가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 위의 글

이슬람근본주의, 이슬람극단주의, 알 카에다이즘 등 어쨌거나 이슬람과 관련된 사상의 영향으로 '순진한' 이들이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로 돌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원인을 찾아보니 '이슬람'이란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보수 언론은 '이슬람'을 범인으로 마음에 찍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건이 터졌고, 곧바로, 뒤로 돌아 볼 것도 없고,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슬람이 테러의 원인입니까?

2. 이슬람은 테러리즘?

1) 이슬람은 테러리즘?

“이슬람 성직자들은 모스크를 이용해 극단주의를 설파하고 젊은 시대에게 지하드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다.” - '런던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해방구', 업코리아, 2005. 07. 15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모스크에서 '극단주의'를 설파했을 수도 있고, 인류의 정의가 뭔지를 설파했을 수도 있고, 이라크에서 영국과 미국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무슬림 형제자매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설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는 '극단주의'로 비춰지겠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일부의 모스크에서 그들이 말하는 '극단주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모든 모스크가 이슬람극단주의의 소굴일까요? 일부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경의 말씀을 빌어 이라크 침략을 정당화 한다고 모든 교회가 침략과 학살의 소굴일까요? 그런 교회는 '일부'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상식이 기독교에는 통하는데 이슬람에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테러를 비난하는 무슬림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소수'가 되는 것입니까?

어쨌거나 한 한국인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어떻게 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전부를 범죄자로 몰아 가냐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구요” - '이슬람을 보는 색안경', 문화일보, 2005/07/19

2) 마도로스? 마드라사?

“런던테러 용의자의 한 명인 세자드 탄위르(22)가 파키스탄의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에서 공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마드라사의 정체에 세계의 눈귀가 쏠리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이 학교가 테러리스트 양성소 노릇을 하고 있느냐다.” - '파키스탄 이슬람학교는 테러범 양성소?', 한겨레, 2005-07-15

“무니르 아크람 유엔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계 청년들이 마드라사에서 공부한 것은 수 십년 전부터인데도 마치 마드라사가 테러범 양성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 '파키스탄 "마녀사냥" 반발', 한국일보, 2005/07/18

마드라사는 테러리스트 양성소일까요?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은 침략자 양성소일까요? 왜냐하면 부시가 예일 대학을 나왔으니깐 (ㅋㅋㅋ)

영국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그 자체가 '이슬람에 대한 근본주의'입니다. 세계 곳곳에 기독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꼴똥 보수 입장을 취하는 곳도 있고, 인류를 위한 봉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슬람 신학교만은 다양한 입장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왜 그 학교에서는 오직 이슬람 근본주의만을 가르칠까요? 물론 타리크 알리의 지적처럼 파키스탄의 마드라사에서 그들이 말하는 극단주의자들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부시도 살고 노엄 촘스키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 마드라사를 더욱 근본주의로 흐르게 하고 무장을 하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들이 소련에 대항하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는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을 키우고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 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지금 그들은 마치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싹을 키울 대로 키워놓고서는 말입니다.

3) 내가 하면 신념, 니가 하면 테러리즘?

“10학년용(15세 대상) 파키스탄 역사교과서는 "지고 지순한 지하드는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며, 그 대가는 순교자로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파키스탄 '테러공장' 왜?', 한국일보, 2005/07/27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나의 생명을 하느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의 담론 체계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기독교 담론은 정상적인 것이고 비슷한 내용의 이슬람 담론은 비정상적인 것도 모자라 테러리즘의 뿌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믿고 섬기는 종교들에게 이 정도의 담론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용되느냐를 떠나서 말입니다.

3. 문명충돌론과 이슬람의 악마화

1) 문명충돌?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놓인 벽은 높고 두텁다. 영국과 중동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는 두 문명의 충돌

1) '파키스탄에서 온 평범한 이야기', [근본주의의 충돌], 미토

에 뿌리를 두고 있다. 충돌의 역사는 길다. 그만큼 적대감도 강하다. 두 문명의 충돌이 계속되는 한 세계 평화는 요원해 보인다.....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그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다. 그는 14일 '문명의 동맹'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런던 테러 직후다.", '아난 유엔총장 "문명의 동맹 만들자" ', 중앙일보, 2005년 07월 19일

이라크 침략이나 중동지역 문제 관련해서 요즘 가끔 문명충돌론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① 몰타기입니다.

미, 영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략은 명백한 침략전쟁이고 학살전쟁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기독교 문명의 전파가 아니라 돈과 권력입니다. 1천여 년 전에 있었던 십자군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은 돈과 권력이지 성지회복이니 그리스도니 하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라크 침략의 명분일 뿐이듯이 말입니다. 이라크인들과 많은 무슬림들, 한국인들, 미국인들이 미국과 영국의 학살전쟁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것은 그들이 침략하고 학살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문명충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돈과 권력을 위한 침략 행위를 종교나 문명의 이름으로 감춰보려는 것입니다.

② 본질보다는 겉다리를 본질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사이에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용해 부당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푸는 데는 서로 잘 모르던 문명에 대한 이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핵심인 미국과 영국의 패권정치를 해결 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핵심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적인 것만을 푼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③ 좋은 게 좋은 거니 하는 사고입니다.

두루 두루 싸우지 않고 살면 오죽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안 되니깐 문제지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와 권력자들의 탐욕과 폭력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사회체제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가만두고 기독교와 이슬람 성직자 몇 명이 만나서 악수한다고 평화가 올까요? 성직자들이 악수하는 동안에도 미군과 영국군의 폭격기는 이라크를 박살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100%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니 하는 사고보다는 당장에 미국과 영국보고 이라크에서 손떼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상황은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학살과 폭력입니다.

2) 이슬람의 악마화

미국과 영국정부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말하는 이슬람이란 여기저기 있는 무슬림들을 포함하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포함하고, 지역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하고, 무슬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해 놓은 아랍권, 이슬람권에서 살면서 미국과 영국의 패권주의에 저항동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아랍권의 저항** : 아랍권에는 이슬람 문명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랍권을 이슬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영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것도 이슬람, 민족주의, 여성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그냥 열 받아서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그들 눈에 중요한 것은 저항하는 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뿐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들을 몽땅 그려 억누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고 그것이 아랍이니 이슬람이니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식민주의**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 이들 국가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아랍 세계의 민주화나 평화가 아니라 지역 패권과 석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접 지배하든 아니면 현지에 독재자를 만들어서는 관리시켜야지요. 지역패권과 석유를 목표로 지배 대상을 몽땅그려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아랍이나 이슬람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새로운 적**

히틀러의 빈 자리를 스탈린이 메웠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하고 나니 새로운 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냥 이슬람이라고만 하면 구체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서 그동안 키워서 잘 써먹었지만 이제 쓸모없어진 알 카에다를 등장 시킨 것입니다. 주연 배우로는 절친한 친구 오사마 빈 라덴을 등장 시켰구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마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이 병에 걸려 죽으면 비슷하게 생긴 인조인간이라도 만들어서 써 먹겠지요 ^^;;

④ **인종주의** - 이에 대해서는 아래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4. **언론과 유럽 그리고 인종주의**

1) **순수한 유럽을 찾아서?**

“유럽 내 총 이슬람계 주민 인구는 약 2300만명. 유럽 전체인구의 약 10% 규모로.....유럽 내 이슬람계가 유럽문화 및 정치·종교 등과의 혼합을 거부한 채 ‘섬’으로 살아가면서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 ‘물과 기름’ 융합 못하고 갈등, 문화일보, 2005/07/12

“유럽엔 약 20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 아랍권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다. 출산율도 높다. 중세 무슬림의 유럽 정복 이래 1000년 만의 대이동으로 불린다. 유럽에서의 테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테러와 그 상징들, 중앙일보, 2005.07.20

유럽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가진 백인들의 사회가 유럽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10%에 이르는 무슬림들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유럽에 끼여 있는 이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유럽은 기독교 백인부터 해서, 무슬림들, 유대인들 또는 흑인들 등 다종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슬림들을 섞이기 거부하는 비유럽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주의입니다.

도대체 진정한 유럽인이란 누구입니까? 더군다나 무슬림들이 섞이기를 거부했는지 아니면 무슬림들이 섞이는 것을 다른 이들이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스위스 이민 2세대인 대학원생 리카르도(27)씨는 “스위스는 이민 2, 3세대의 국적 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수차례 부결하는 등 최근 수년간 경기 둔화로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며 “특히 그동안 이슬람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취업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유럽은 이슬람을 안을 수 있는가’, 한겨레21, 2004년12월30일 제541호

유럽의 일부는 인종주의를 이용하고 일부는 인종주의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인종주의는 히틀러만의 것이었을까요? 오히려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 만연하던 인종주의를 히틀러가 더욱 강화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유럽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히틀러와 인종주의를 극복한 것처럼 했지만 여전히 유럽 우파들은 인종주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종차별주의의 목적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종차별주의의 목적은 사람들을 체제 내에 붙들어두되, ‘하급인간’으로 대하여 경제적으로 착취할 수 있고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써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 ‘미국패권의 몰락’, 이매뉴얼 월러스틴, 108쪽

값싼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불러다 쓰고, 침략 전쟁에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무슬림들을 제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령처럼 늘 떠돌아다니는 인종주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2) 히틀러를 따라가는 그들의 해결책

“문명세계는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문명세계는 무차별 폭력의 ‘근본 원인들’을 헛되이 찾으면서 이러한 살인자들에게 계속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혹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의심스러운 중동 남자들의 서방 입국을 거부하는 한편 중동의 독재자들과 거리를 둘 수 있다.” - enough is enough, 세계일보, 2005.07.25

그들에겐 더 이상의 타협이나 진지한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 계토를 만들어 가두듯이, 무슬림들을 차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히틀러식 처방이 나오게 되는 데는 인종주의와 함께 아주 잘못된 상황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이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전면전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미국과 다른 서방국들은 놀랄 필요가 없다”, 위의 글

사실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아랍권에 대한 무차별 침략과 학살이라는 ‘행동’이 공격의 원인이지 기독교인이거나 영국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차이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기 위한 거짓 변명일 뿐입니다.

5. 가끔 나오는 진실

“7·7 런던 테러는 영국이 미국을 도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 등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친정부 유력 싱크탱크 보고서가 배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 ‘영 왕립연구소 “7·7테러는 이라크전 개입 탓”’, 세계일보, 2005.0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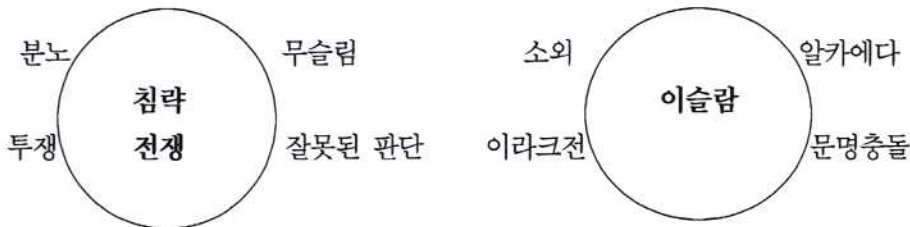
“런던의 켄 리빙스턴 시장은 20일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석유를 노린 서방의 잘못된 중동 정책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성장의 밑거름이 됐으며 런던 테러를 발생시킨 궁극적 원인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좌파시장의 런던테러 원인 진단, 부산일보, 2005/07/21

때론 진실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언론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진실을 알았다고 해도 습관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명분으로 거짓을 팔아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것이 많은 언론의 자기 존재 이유죠. 그리고 이들은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사하게 거짓말 하고,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행위자(주체)가 아니라 관찰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지도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 ① 미국과 영국 등이 벌이고 있는 학살 전쟁에 대해서
- ② 무슬림이든 저같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③ 그 가운데 일부는 같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더 큰 울분과 비참함을 느낄 것입니다.
- ④ 그리고 또 일부는 이번 전쟁에 대해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부와 자본이 일으킨 전쟁을 전체 시민들의 문제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 ⑤ 그리고는 영국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버스과 지하철에서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 미니가 보는 원인과 많은 언론들이 보는 원인 ::



침략전쟁이라는 핵심 주변을 분노와 투쟁, 무슬림, 잘못된 판단 등이 감싸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은 핵심은 주변으로 다루면서, 주변의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며 핵심을 흐릴 뿐만 아니라 핵심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과 국가권력의 부정부패 보다는 모든 초점을 도청문제로 바꿔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언론들이 아주 잘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은 가리고, 대중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의도했든 그러지 않았든지 말입니다.

6. 테러 관련 보도에 대한 짧은 생각 몇가지

어떤 언론인들은 거짓을 퍼뜨리기 위해, 또 어떤 언론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의심할 줄 아는 언론, 물음을 던질 줄 아는 언론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이슬람과 무슬림들은 무슨 정신이상자 집단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 한번이라도 무슬림을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라의 말씀이 곧 '사랑'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무슬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차별에 반대하며 남녀평등을 실천하는 무슬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라크 침략뿐만 아니라 9.11에도 반대하는 무슬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이 이라크를 침략해서 학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4명의 영국인들이 런던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이라며, 파키스탄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만약 이번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들이 살아남아 조사 과정에서 '그냥 재미 삼아 그랬어. 라고 해도 영국 정부는 '알라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영국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이슬람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슬람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슬람에 대한 영국 정부와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영국정부와 그들과 협력하는 언론의 말만 듣고 그들이 비난하는 집단의 입장은 들어 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도 살인범과 인터뷰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은 언론들이 해답을 주장할 줄만 알았지 물음을 던지는 기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열을 내서 무언가를 말 할 때, 그들이 저런 말을 하는 이면에 무언가 감춰져 있다고 의심해 보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 이것이 언론의 역할 아닐까요? 언론이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2) 국가테러리즘과 저항권

현대 세계 테러 문제의 핵심은 미국,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과 같은 국가들이 벌이는 국가테러리즘입니다. 그 규모나 파괴력, 피해로 따져 봐도 이들 국가들이 벌이는 테러에 대한 논의를 빼고 테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의미할 지경입니다.

물론 그동안 그들은 그들이 벌이는 학살과 테러는 작전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언론은 아주 충실하게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받아 적구요. 왜냐하면 미국정부와 같은 테러집

단들과 보수언론들은 한편이니깐요 그래서 동지인 아군-미국,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정부의 행위는 정당화 되지만 적들-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체첸, 팔레스타인-의 행위는 모두 테러가 되는 것입니다. 담론과 뉴스를 팔아 부와 권력만을 추구하는 많은 언론들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인권 가운데 저항권이란 얘기 아시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조선인들이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의 행위를 두고 테러니 폭력이니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일본군의 행위를 침략이니 테러니 하는 말들도 표현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테러가 아니라 저항입니다. 물론 가끔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이상한 짓을 벌이고서는 저항이라고 자신을 합리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냇물을 흐리는 몇 마리 물고기지요.

테러는 테러고, 저항은 저항입니다. '안중근=테러리스트'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3) 반공시대를 넘어 진실의 연대를 위해

또 요즘 테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반공'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던 테러 이후 영국의 한 기지는 칼럼을 통해 공항과 비행기에서 좀 더 날카로운 눈을 가질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공항의 보안검색이 '불편하고 비인간적'이란 불평에 앞서 수상한 가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내부자에 의한 테러'가 평일 출근길에 일어나는 시대에 지구인이 사는 법이 아닐까 싶다.", '테러가 나은 불편한 일상', 서울신문, 2005년 07월 30일

몇몇 언론들이 하는 얘기대로 하면 순희 집에 오랜만에 삼촌이 놀러 왔는데 일본에서 온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고, 새벽에 산에 내려오는 사람 가운데 신발에 흙을 묻혀 오는 사람은 없는지, 밤늦게까지 라디오를 듣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와 소련을 대체할 수 있는 적으로 알 카에다와 이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은 '공산주의' '소련'과 같은 단어들이 들어갔던 곳에 '테러' '알 카에다'와 같은 단어들만 바꿔 넣고는 반복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언술, 담론 구성 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진짜' 원인이 뭔지를 찾는 끈질긴 노력, 권력과 자본에 기대지 않는 독립 정신,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적극적 사고와 같은 것들이 지금 언론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20세기 냉전 시대의 반공주의 글쓰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이 담론을 이용해 세계를 지배하거나 약자를 억누르는데 협력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진실의 연대를 위해 활동하길 바랍니다.

부록

정형근, 당신의 상상력에 박수를 보내야 할지...

“이란·시리아·리비아·수단·쿠비등 국적 보유자는 2,400여명이며 그중 400여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의 배후로서 알 카에다와 연계된 동남아 최대 테러조직인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ah)」의 활동 본산인 인도네시아 출신 국내 체류자가 2만5천명이며 그중 6천여 명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필리핀 모로 이슬람해방전선(MILF)등 이슬람계 테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파키스탄 등 동남아 출신으로 국내에 합법, 불법 체류자와 왕래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알 카에다의 테러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테러의 다음목표는 한국?’, 정형근 의원 홈페이지, <http://www.openjnhk.com/>

이런 발상은 부당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입니다.

1999년에는 콜롬비아인 고등학교와 애틀란타 증권사 객장에서 총격으로 10여 명씩 사망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미네소타 주 레드레이크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격으로 1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미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총기 살인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미국인에 의한 총기 살인을 막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예비 살인자로 의심하고 단속해야 할까요? 천만번 양보해서 정형근 의원이 말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서 감시하면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한국인 가운데 군대 안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람이 있으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출신들은 모두 예비 범법자로 감시 받아야 할까요?

‘미 CIA·영 MI6·일 내각조사실등 선진 우방국 정보기관과 테러관련 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책이라고 이런 말씀은 하시는데, 우스개로 얘기하자면 정형근 의원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잘난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도 9.11과 7.7을 막지 못했는데 협력한들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그죠? ^^

정형근 의원은 지금 증오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집단 전체를 증오하게끔 만드는 범죄입니다. 히틀러가 왜 히틀러가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중의 증오를 잘 조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에 살아가는 무슬림이 전하는 메시지

에르한 아타이 (이스탄불문화원장)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장난치며 이곳 저곳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일곱 마리의 도마뱀 꼬리를 자르면 천국을 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을 너무나 성스러운 곳이라고 믿었던 저는 주변에서 도마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한 저는 바로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고 나서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천국에 갈수 있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와 조금 전 제가 행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의 예상과는 달리 선생님께서는 얼굴이 상기되신 채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에르한, 그 도마뱀이 너의 음식을 훔쳤니? “아니요”

“그 도마뱀이 너를 깨물었니? “아니오” “ 그 도마뱀이 너를 공격했니? “아니오”

“그 도마뱀이 너의 허락 없이 너의 옷 속에 들어갔니?” “아니요”

그런 후 선생님께서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를 공격하지도 않고 깨물지도 않는 불쌍한 도마뱀의 꼬리를 잘랐니?

저는 그제서야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된 저는 집안에 들어온 작은 모기 한 마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저의 집사람은 집에 들어온 모기를 잡지 않는다고 저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 집사람의 잔소리에 가만히 웃을 수밖에 없는 저와 같은 경우는 이슬람 문화속에서 자라난 모든 이들은 경험하였거나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저는 요즘에 두 가지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이슬람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이슬람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행하는 공포와 테러 때문에 나의 소중한 믿음이 테러와 함께 비판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 죄 없는 아이들 노인 등 많은 희생자들의 목숨을 앗아버린 9.11테러.

만약 똑같은 일이 저와 혹은 저의 가족한테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항상 저 자신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궁금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이슬람’이 뭐냐고?

‘무엇을 믿는 종교냐?’ 이와 같은 질문들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종교라고 믿고 아이들에게 대답을 하는 모습들이 텔레비전에서 비쳐질 때 전 저의 자신조차도 보기 싫은 왜곡된 모습들을 봅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수염을 기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슬람의 모습인 듯 비추어지는 현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슬람의 의미는 평화와 안전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마치 테러를 위한 종교처럼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원인은 여러가지겠지만 젤 중요하게 보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 이슬람 신앙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원래부터 이슬람을 편견을 갖고 바라보던 서구 세계의 언론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색안경을 끼고 이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슬람과 테러의 관계’, 이를 두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슬람 교류가 전쟁 테러와 성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둘째로 이슬람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슬람 교류에 따라 테러와 성전

이슬람의 가르침을 저희한테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유일한 창조자 알라께서 그의 선지자 모하메드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꾸란’의 가르침 입니다. 이슬람 신앙자들은 신앙 생활을 할 때 두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 합니다.

첫째는 꾸란

둘째는 선지자 모하메드 말씀과 가르침

밑에서 여러 가지 꾸란에 나오는 계시록을 예로 들겠습니다.

(꾸란 제 5장 8절)

믿는자들이여 정의에 의하여 입증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공정한 증인이 되라. 타인에 대한 증오로 공정을 잃어서는 아니되나. 식동물이 너희를 위해 사냥하여 온 것도 허락된 것이거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염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계산에 빠르시니라.

(꾸란 제 5장 32절)

이런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내렸나니 타인과 그리고 지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해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구제하는 것과도 같다 하였으며 그리하여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셨노라 그 후에도 너희 가운데 대다수는 지상에서 과오를 저지르고 있더라.

선지자 모하메드께서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계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의 운명이 있듯이 아주 큰 반대와 고통을 받게 되셨다.

몇 년이 지나도 전해주시신 말씀을 믿는 자도 없었고 반대로 지나가는 길에 가시로 지르고 팔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성지 메카에 있는 카베에서 예배를 할 때마다 몇 번씩이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떨 때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때 목을 조르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행하는 이들 중 한 명은 “에브제일”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살면서 모하메드께 욕을 하고 또한 몇 번이나 죽이려고 공격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아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때 모하메드 선지자께서는 ‘에브제일’의 언행과 행동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모하메드 선지자께서는 이슬람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느날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을때 한 유대인이 시신을 들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모하메드께서 일어서 그에게 존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도 물어보았습니다.

‘죽은자는 유대인인데 왜 일어서 그에게 존경한다는 표시를 하십니까? ‘모하메드 선지자께서는 ‘ 죽은 자 역시 사람입니다. ‘

‘좋은 무슬림이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무하메드 선지자께서는

‘이슬람을 믿고 남에게 편안함을 주며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즉 좋은 무슬림이란 비판의 말이나 행동 등 어떤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 등을 통하여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슬람에서 가장 훌륭한 행동은 무엇이나? (성전)’ 라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인사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모하메드선지자께서는 성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은 성전 -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한테 전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성전이다. 그것은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행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하면 세계인들은 이슬람인들 마음속에 있는 큰 성전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큰 불행은 잘못 행해지는 작은 성전에만 집중하는 사실입니다.

이슬람제국의 두번째 “칼리페 “요메로” 군인들을 전쟁에 보낼 때마다 아래와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로 부터 두려워 하라 그는 항상 너희들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잊지 말아라 이슬람은 평화와 안전과 사랑의 종교다. 밭과 과일 정원들을 해치지 말라. 어떤 종교든 예배중인 신앙자들에게 손대지 말라.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을 존경하라. 민간인들을 죽이지 말라. 여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들어가는 지역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 시민들로부터 선물을 받지 말라. 군인들을 시민들의 집에서 재우지 말라. 하루에 5번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것을 잊지 말라. ‘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슬람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전쟁은 지배의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자기를 공격 하는자를 퇴치하기 위해서 허용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유명한 이슬람 학자 “누르시” 선생님은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열명 중에 아홉 명이 악행을 하는 자 한 명이 죄 없는 자라도 그 배를 공격할 수 없다. 왜냐면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이 살아야 할 권력 때문이다.’

이슬람 세계의 문제점들

19세기부터 이슬람나라들은 서구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슬람 나라들에서 수십년간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들에서 국민들을 합치게 하는 것을 민족주의와 종교였습니다.

이슬람 나라들은 독립하는 것에 권력을 가진 가족들이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권력자들이 자기 국민들의 문화와 종교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국민들을 제대로 된 종교나 생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슬람 나라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라를 발전 개발시키는 대신에 자기들의 권력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세워 왔습니다.

이슬람 세계든 제 3세계든 모든 민족들에서 테러의 기본 원인은 세가지입니다.

- a) 가난한
- b) 무지함
- c) 나라안의 있는 여러 민족들을 집중으로 진행되는 분쟁

이 세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 테러와 전쟁을 그만 둘수 없습니다.

오늘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민주주의 인권지식과 교육 경제적 안정과 빈부격차 같은 개념들이 튼튼히 뿌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 줘야 될 나라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했던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유럽,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도와줄 마음없이 제 3세계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수 있나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떻게 하면 분쟁등 일으키고 중간에서 이익을 볼수 있나 는 정책은 고쳐져야 합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 어디서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너무나 잘 살고 있으면 옆에 나라가 가난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개발된 나라에 어쩔 수 없이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법이 마치 법인듯 되어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 전세계에서 마약, 도박, 뇌물, 마피아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있는 그룹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이익을 해칠수 있는 원인들을 자기들이 키웠던 테러 그룹을 통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현재 이슬람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슬람 나라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이 이슬람법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꾸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이슬람 나라들은 한가족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고 또한 어떤 이슬람 나라들은 아직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국민들을 무슬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나라들을 이슬람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30%의 불교를 믿고 있는 한국, 중국, 대만 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을 불교나라 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테러의 개념이 아직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 할수 있는 테러가 뭐냐 무엇을하면 테러이고 무엇을하면 아니냐는 개념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테러가 뭐냐는 질문을 자기 뜻대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독립운동가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시급한 현황은 테러의 개념 정리가 유엔에 의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한국에서 20만명 이상의 외국노동자들이 한국 안에서 일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슬람나라에서 온 무슬림들입니다. 60년대 한국분들이 자기 나라와 자기 가족을 위해 미국, 독일, 중동나라들로 일을 하러갔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외국노동자들은 단지 자신의 가족과 자기나라를 위해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잘못된 이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테러리스트로 규정짓는 것은 잘못된 일인 듯 합니다.

단지 몇몇이서 저지르는 그릇된 행동들로 전체를 규정짓는다면 이 또한 서구식의 편견과 다를바가 없는 듯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2차 대전때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행했던 일들이 히틀러와 몇몇의 잘못일까요? 아님 독일인 전체가 잘못된 일일까요?

이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한국분들이 알고계신 '성전'은 잘못된 편견으로 테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자신과의 큰 싸움, 평화와 안전 그리고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종교가 진정한 이슬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조금도 잘되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이슬람 신앙자 어머니와 가난함 속에서 정치와 권력에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는 아버지들을 테러리스트로 단정지시지 말아주십시오.

불행속의 한나라를 돕기 위해서는 단지 군인을 보내 해방시켜주기보다는 NGO등의 민간단체가 펼치는 다양한 민간사업이 더욱더 의미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자기 이익중심 국제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테러의 노력보다는 국제민간단체들이 행하는 노력의 더 커야 이 세계에서 테러가 사라질듯합니다.

<토론 2>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테러방지법 입법 주장의 위험성

박성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테러방지법 관련 국회 상황들

런던테러 직후 국회 정보위원회는 7/11 테러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밝히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당직자 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 8월 21일, 조성태의원(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발의서명을 받고 있음을 밝히며 “당론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한겨레신문 8월 21일자 2면). 한편 한나라당은 올 3월 15일 공성진의원 외 21명 의원들이 서명한 테러방지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들

2개의 법안은 지구 몇 개 차이점 외에는 다른 점을 찾지 못할 만큼 유사하다. 특히 테러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채 각종 국제협약에서 명시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처벌한다는 용어 정의에서부터 시작해 테러업무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설치한다는 점 등 골자는 2001년 11월 국정원이 입법시도한 법안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테러예방을 위해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대통령 소속, 의장 국무총리)와 소속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두 기구는 국정원장을 비롯한 각 부 장관들이 참석한다. 대책위와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둔다(대책위에 국정원장이 구성원이므로 대테러센터가 대책위의 하위기구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테러센터는 국내외정보 수집,분석 작성, 배포 / 테러대응책 강구 / 테러징후 탐지 및 경보 / 외국 정보기관과 정보협력 등을 주 업무로 한다. 그러나 국내외 정보수집,분석 항목은 국정원법 3조에 따른 국정원 고유업무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업무이다. 또 테러징후 탐지 및 경보 관련해 테러저보를 포착하고 나서 관련 인물, 진행 상황을 “탐지”하는 상황은 이미 수사에 돌입하는 단계이다. 이는 테러를 이유로 사실상 국정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법 11조에 테러위험인물 추적 등 업무를 명시해 보다 포괄적이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테러정보 통합관리, 경보 발령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의 시각에 따라 모든 정보가 통제, 재생산되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다. 이미 통신, 이메일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합법화 하는 내용이다.

한국의 테러 예방 활동들

런던테러이후 인천국제공항은 테러단계를 한 단계 높여서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국정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항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보안대책 마련, 합동점검, 대테러조치를 논의하고 실제 상황을 가상해 연습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7/19 테러 대응 업무를 총괄할 '대테러센터'를 개소하고 종합적, 전문적 대응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15일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 훈령 47호)에 따라 국가정보원내 테러정보통합센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위기대응매뉴얼의 테러상황을 가상해 정부각부처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고 실제훈련을 예비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통합방위법 역시 우리사회전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하고 법규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런던테러사태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테러 발생 가능성을 테러를 막는다는 이름으로 제반 법규범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인권개념들에 예외적인 법을 만드는 것은 테러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이같은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수많은 위험, 갈등 등에 대해서 '개조심' 말뚝 박듯 법 하나 뚝뚝 만들어 들이밀면 해결될 것처럼 하는 방식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닥쳐올 위험이나 위기상황을 이유로 인권을 제한하거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간 어렵게 지켜온 정치적 시민적 권리, 양심 사상의 자유 등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들이 멀지않은 미래에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관계, 사회 정치적 갈등문제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공통으로 테러업무를 총괄할 부서로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발상은 테러업무 효율성을 빌미로 권한이 집중된 막강한 기구에 의해 사회가 지휘통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테러라는 위기상황을 이유로 권력집중된 위험천만한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루게 편재되어 있는 각 영역별 기구, 업무부처들이 서로 조화롭게 정보를 나누고 전문적인 의견과 역할을 종합해서 현실에 미칠 영향과 결과를 예상하고 조율하는 민주적 방식을 확고히 해야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 있는 법제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대응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하는 일에 더 귀기울여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더디더라도 테러위협을 실제적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을 모으고 국제적 규범으로서 테러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시민들 사이의 민주적 논의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노력,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연대가 절실하다.

<참조1> 테러관련 국내법과 제도

소관 법령	테러 관련 업무내용	담당기관(부서)
국가정보원법	테러조직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정보원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대통령훈령제47호)	경찰청(경비국 경찰특공대)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국제테러범죄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 및 방해책동의 사전차단	대검찰청(공안부 공안기획관)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관세청(조사감시국)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해상에서의 테러예방 및 진압	해양경찰청(경비구난국)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출입국관련 대 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지원	법무부(출입국관리국)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항공기의 피납방지 대책 및 대테러 예방대책 수립	건설교통부(항공국)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각종 국가위기의 예방 및 관리체계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업무와 긴급사태 발생시 상황전파 등의 초기조치, 국가재난·재해 관리체계의 종합조정, 상황실의 운영 및 유지업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위기관리센터)
재난관리법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의 예방이나 수습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중앙안전대책위원회(국무총리 산하 기구,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
국군기무사령부령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테러에 관한 업무 수행	국군기무사령부
통합방위법	테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통합방위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과 경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일정한 범위의 직장 등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 구축 및 권한 부여	중앙통합방위협의회(국무총리 산하 기구,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

<참조2> 대통령 훈령 47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 (개정 전 내용, 공성진의원 간담회 자료에서 발췌)

- 1982년 버어마 랭군 사태이후 만들어진 훈령으로 테러관련 대응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2003년 12월 1일부터 '대테러상황실'을 운영해 왔다.

1) 주요내용

- 현재 대테러업무의 법적 근거는 국가정보원을 소관부처로 하여 대통령 훈령 제47호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임
- 동 지침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다음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실무위원회, 지역 대테러실무위원회, 공항·항만 보안대책협의회 등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구성
 -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조직으로서 대책본부 및 대책반, 현장지휘소, 대테러특공대, 협상팀, 지원팀, 합동조사반 등 구체적인 대응기관의 구성과 운영
 - 테러예방활동, 대응활동과 관련하여 정보의 수집과 전파, 실제 사건발생 상황 하에서 당해 사건의 관할기관 및 임무
 -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및 국정원 등 관계기관별 임무

<참조3> 정부 각 부처의 테러업무현황

1. 국정원 고유직무(2004년 10월 21일 국정감사 보고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 ①국정원은 다음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밀줄 글씨 사법경찰관(수사권) 부여(국정원법 16조)

2. 대통령훈령 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테러업무 현황

- 1) 국정원 내 대테러 상황실 ⇒ 2005.4.1 테러정보통합센터로 변경
- 2003년 12월 1일부터 국방부, 경찰, 검찰, 소방방재청과 합동 운영
- 24시간 운영체제
- 테러관련, 국내의 상황 종합처리
- 테러위해물질 안전관리
- 테러대상 시설보호
- 국제행사 안전활동

-테러분자 신원자료집 발간배포 및 입국금지 등

3. 정부 각 부처 테러업무 현황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 국가위기관리표준매뉴얼 시행

- 32개 위기상황에 대해 안보분야와 재난분야로 나눠 300여 종의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 안보분야 - 북핵우발사태/서해북방한계선 우발사태 / 개성공단 우발사태 / 대통령권한 공백 / 재외국민 보호 / 소요 폭동 / 파병부대 우발사태 / 테러/ 기타 상황
- 재난 분야 - 풍수해 / 지진 / 산불 / 고속철도 대형사고 /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 수질 해양 등 대규모 환경오염 / 화학유해물 유출사고 / 지하철 대형사고 / 공동 구재난 / 전염병 등

2) 대통령 직속기구 -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가정보원

- 대통령경호실 - 국가원수 및 호위 필요한 국내외 요인에 대한 테러방지활동(대통령경호실법)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통령 자문기구역할과 포괄적안전보장에 관한정책(국가안전보장회의법)
- 국가정보원 - 국내외 테러정보수집 분석배포 외국정보기관 협력 국가중요행사 안전활동 등 (국가정보원법, 국가대테러활동지침)

3) 군대, 특수부대 운영 -국방부/경찰청/해경청 : 군대

- 국방부-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 보유
- 경찰청

- 대테러전담 경찰특공대(6개 지방청, 제주신설예정), 테러협의자에 대한 동향관리 및 수사 등

- 해양경찰청 - 해상테러대비 경찰과 유사기능

4) 화생방테러 관련

- 환경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부
- 화생방 테러에 대한 예방활동과 사건 발생시 대책본부 운영 임무, 기능

5) 항공기 관련 테러

- 건설교통부 - 항공기테러예방 활동(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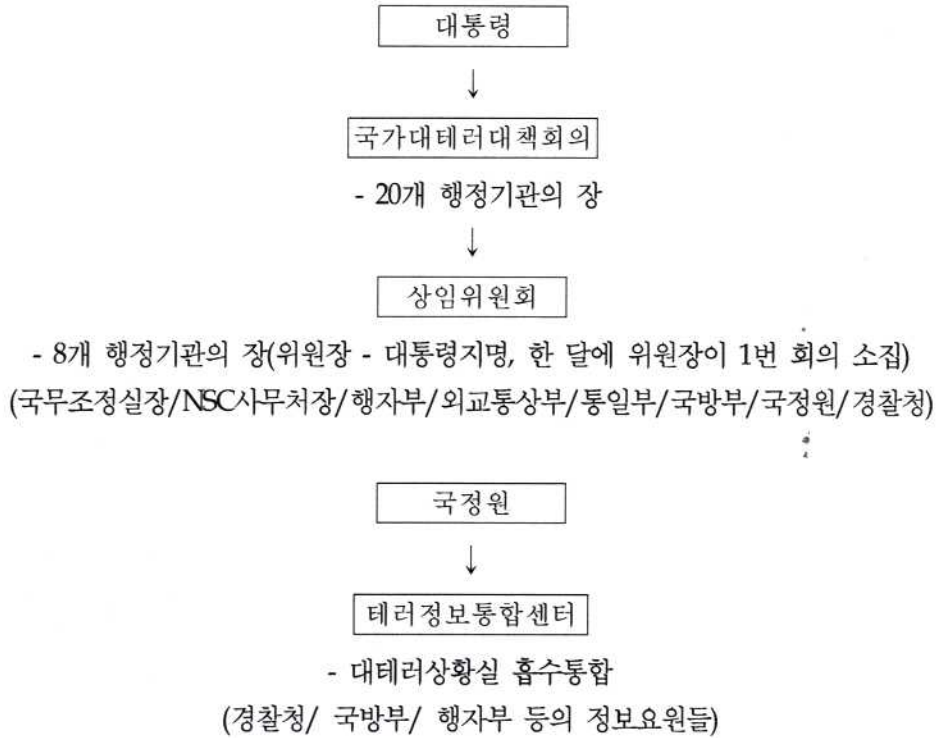
6) 재정경제부/ 법무부 / 관세청

- 재정경제부 - 테러자금 차단활동
- 법무부 - 테러범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및 출국조치
- 관세청 - 폭발물 총기류 화학물질 등 테러이용물질 국내반입 차단활동

7) 그외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대검찰청

- 외교부 -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예방 대응활동 및 국제조약체결 등 국외활동
- 행정자치부 - 사건발생후 구조, 구급 활동등
- 대검찰청 - 테러사건 수사 총괄

4. 개정된 훈령에 따른 대테러기구 배치



마.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

1) 유엔테러단체 지정기능, 권한 없음

법안에서는 테러단체를 유엔에서 지정하는 테러단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유엔어느 부서에도 테러 단체를 지정하는 권한과 기능은 없다. 2005년 3월 10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반테러정상회의”는 미국의 일방적인 테러와의 전쟁이 더 많은 테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협약의 공동대응과 민주적인 방식을 촉구했다.(세계일보 2005.3.11자) 유엔은 테러대응보고서를 발표하고 민주적인 대체를 역설했는데 특히 테러자금을 차단하는 강조했다.

2) 국제협약들

테러 관련 총 12개의 국제협약이 있고 이를 통해 국제협조 체제가 이뤄지고 있다.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1963 동경협약)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1970 헤이그협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의억제를 위한 협약(1971 몬트리올 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의정서

외교관등 국제적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73)

인질억류방지에관한 국제협약(1979년 인질협약)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1980)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1988)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1988)

가스성 폭약의 탐지용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1991)

폭탄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1997)

테러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1999)